

오피니언

다산포럼

강명관



다산은 '직관론'이란 글을 두 편 남기고 있다. 그 중 1편을 읽어보자. 직관론은 이렇게 시작된다.

어떻게 해야 천하가 다스려질까? 관각(館閣)과 대간(臺諫)의 벼슬을 없애버려야만 천하가 다스려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관각과 대간의 벼슬을 없애버려야만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임금의 덕(德)이 바르게 되고, 어떻게 해야 백관(百官)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어떻게 해야 조정의 기강이 서고, 어떻게 해야 풍속이 인정스러워질까?

관각과 대간의 벼슬을 없애버려야만 임금의 덕이 바르게 되고, 백관이 직무를 잘 수행하게 되고, 기강이 서고 풍속이 인정스러워질 것이다.

관각이란 홍문관·예문관·규장각 등을 말한다. 조선시대는 이 관청의 벼슬을 가장 명예로운 것으로 쳤다. 관각의 직무와 구성원은 서로 겹쳐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싸잡아 말해 본다. 이곳의 벼슬은 대개 문학에 관련된 일을 맡는다. 관각의 가장 큰 임무는 왕의 교서를 대신 작성하고, 왕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또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로 왕을 가르치는 경연관이기도 하고, 또 사관으로서 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참석하여 사초(史草)를 작성하기도 한다. 곧 왕과 국가, 왕실과 관련하여 최고의 문학적 능력을 발휘하는 벼슬이 대각의 벼슬인 것이다.

대간은 사헌부와 사간원을 말한다. 사헌부는 왕에게 관리의 부정을 고발, 탄핵하고, 관리의 인사 발령 과정에서 하자 여부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사간원은 국왕에 대한 간쟁(諫靜)을 전담하는 관청이다. 원칙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 활동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많았기에 합쳐서 양사(兩司)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 중요한 관직을 다산은 왜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것인가. 관각은 평소 임금을 가까이할 수 있는 벼슬이고, 또 반드시 관각을 거쳐야 고위관직으로 출세할 수 있었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은 관리에 대한 탄핵, 왕에 대한 간쟁을 담당하기에

당쟁이 일상화된 조선 후기 정계에서는 당파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런 이유로 관각과 대간은 다산의 시대에 양반들이 가장 선호하는 벼슬이었다.

여기서 다산이 살았던 시대가 서울의 열 몇 개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시대였다는 사실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관각과 대간 벼슬이 특정 당파, 특정 가문의 독점적 소유물이 되어 있었던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기득권을 전자들은, 아무리 문학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도, 자기 당파, 특정 가문 출신이 아니면 골라내어 버린다.

한 사람을 뽑아 국가의 인문적 과업에 쓰자고 만든 관직이었고, 대간은 원래 끈고 강직한 사람을 뽑아서 비리를 적발하거나 왕의 잘못을 바로잡자고 만든 관직이었다. 하지만 관각과 대간은 다산의 시대에 당파와 발열의 사유물로 전락해 있었다. 관각은 발열가의 첫비린내나는 아이들의 출세도구가 되었고, 대간은 상대 당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다.

다산은 관각이나 대간은 성인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없던 것이라 말한다. 유가의 성인인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오직 문학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고, 강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강직하게 임금에게 간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시대에 와서는 관각과 대간이 그 역할을 독점하기에, 다른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문학적 역량이 있어도, 아무리 임금을 향한 충분(忠憤)의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펼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하여, 그는 차라리 관각과 대간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직관론'을 읽으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관각과 대간은 어떤 자리인지, 또 그 자리는 어떤 성격의 사회세력이 장악하고 있는지 꼭 궁금하다. 이런 방면에 대한 연구는 없는 것인가? 있는데도 내가 모르는 것인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없애야 할 벼슬

예컨대 홍문관 벼슬을 할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자. 과거 합격자 명단이 나오면, 홍문관에서는 그 중에서 홍문관의 벼슬을 할 사람을 골라 홍문관이란 명부를 작성해 의정부에 올린다. 의정부에서 홍문관에 오른 사람의 등수를 매겨 왕에게 보고한다(도당록의 작성). 왕은 도당록의 순위에 따라 교리, 수찬 등을 임명한다. 이런 식으로 기득권층은 국가 권력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이질적인, 적대적인 부류를 속내내던 것이다. 이것이 조선 후기 발열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방법이었다. 관각은 원래 문학적 역량이 가장 출중

시설

부녀자 상대 범죄 확산 구멍 뚫린 광주치안

여성들이 새벽에 집을 나서기가 두렵다고 한다. 새벽녘 광주 시내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들이 잇따라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쇄회로(CC-TV) 등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은 광주가 전국 꼴찌로 나타나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26일 새벽 4시40분께 광주 시내 월동 모 빌라 앞에서 교회에 가려고 집을 나섰던 A(여·23)씨가 뒤에서 달려든 괴한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 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지난 19일 새벽 2시20분께도 진월동 모 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산책 중이던 B(여·35)씨가 괴한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사건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지난 22일 새벽 3시께 서구 삼동 2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30~40대로 추정되는 괴한이 C(여·33)씨를

끌고 나가려다 비명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늘고 있지만 당국의 치안력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의 주요 수단인 방범용 CC-TV만 하더라도 전국에 2만822대가 설치된 반면 광주는 1.1%인 226대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1대 당 관리 인구 수 역시 광주가 6344명으로, 전국 평균 2930명의 두 배를 웃돌아 극히 열악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범죄를 막고 대처해야 할 경찰치안이 허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당장 범죄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또한 범인들이 새벽녘 아파트와 주택 등지를 노리는 만큼 취약시간대 이들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범인은 반드시 검거해야 한다. 경찰의 본분은 질서와 치안의 안정에 있다.

기아차 '20년 연속파업' 불명예 안 된다

스포티지R, K5 등을 연달아 히트 상품 반열에 올리며 현대차를 제치고 내수 1위 등극을 눈앞에 둔 기아자동차가 '파업'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기아차 노조가 노조원들의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타임오프제' 시행에 반대하며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65.7%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파업에 들어갈 경우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된다.

기아차 노조의 이번 파업 가결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파업의 실제 목적이 근로조건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노조 점진자 확보인데다 급속노조 지침에 의한 일괄 파업이어서 법적 정당성이 없다.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노조점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벌이는 쟁의행위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만년 2인자' 꼬리표를 떨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 기아차는 최근 내용은 신차마다 히트를 쳐 이달 들어 내수판매에서 현대차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그토록 열원하던 '내수 1위' 등극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런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호기(好機)를 제 발로 차서는 회사는 물론 노조의 미래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기아차 파업은 고사 직전의 지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지역경제가 건설사의 잇단 부도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기아차마저 파업에 들어간다면 얼얼한 데 덮친 격이다. 파업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과 지역민의 시선이 어떠한 지를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명분도, 실리도 없는 '20년 연속 파업'은 절대 안 된다. 노조 점진자 문제는 파업이 아닌 회사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無等鼓

'파국하고 책임감이 강하지만 고집이 있음' 원정 월드컵 사상 첫 16강 진출이라는 '훈장'을 달게 된 허정무(55)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다녔던 진도군 의신면의 의동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종합평가다.

허 감독의 친구들이나 고향마을 사람들도 "무슨 일을 맡든지 책임을 완수했으며 승리욕이 강해 지고는 참지 못했다"고 기억했다. 이처럼 승부에 대해 강한 집념을 가진 그는 고향마을 주민들에게 '악바리'로 새겨져 있었다. '진돗개'라는 별명에 걸맞은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다.

비록 우루과이에 분패해 8강 진출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한국 대표팀이 보여준 투지만큼은 대단했다. 선수들이 한마음이 돼 선전할 수 있도록 조련한 허정무 감독도 큰 박수를 받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허 감독이 대표팀을 맡은 후 비단길만 걸은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07년 12월 대표팀 감독 취임 당시만 해도 별명처럼 고집스러운 이미지가 강해 언론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을 마무리한 이후 수비 불안과 골 결정력 부족으로 '하루 축구'라는 비아냥에 시달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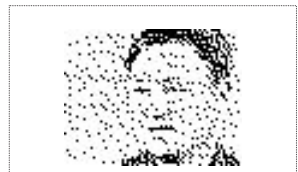
하지만, 그는 주변의 충고와 자발적인 심경변화로 180도 바뀌었다. 그는 대표팀의 새 주장을 맡은 박지성에게 "경

기장에서는 네가 감독이다"는 말로 자율적인 훈련과 경기운영을 유도했다.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선수들에게 주지 시켰다. 훈련 때는 선수들과 어울려 '공놀이' 하며 눈높이를 맞췄다. 자율과 긍정, 소통이 담긴 '허정무

리더십'을 만든 것이다. 우루과이전이 끝나고 빗줄기 속에서 눈물 흘리는 선수들을 안아주며 격려하던 허 감독의 모습은 꼭 인상적이었다. 축구뿐만 아니라 활기있는 조직을 위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명장면이었다.

/*북경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허정무 리더십



기고

이한일



1000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예전과 달리 1000원으로 허거나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들고 있음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원은 '서민들의 지폐'로 불리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이 1000원의 가치에 대해 남다르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빚고음노인건강타운의 어르신 회원들 덕분이다.

원장을 맡으면서 타운의 수요자인 노인들에게 어떻게 서비스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러기 위해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어르신들의 타당한 의견과 건의를 수용하자'고 다짐했다.

에 맞게 변방하고 있고, 프로그램실에는 선풍기를 돌려 더 시원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고 말하며 또 한 모금을 마신다.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묻는 어르신에 대해 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답변을 드린 것이다.

커피를 위해, 원장과의 대화를 위해 어느새 한 줄로 세워진 줄이 길게 늘어섰다. 가능한 끝까지 다 듣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는 맞장구도 쳐드린다. 남녀노소 누구나 자기 말에 동조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법이다. 의외적으로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말을 들으면 뇌의 보상중추가 자극을 받아 만족감을

1000원의 경제학

매일 출근해 아침마다 타운 복지관 지하 1층에 옹기종기 모여계신 어르신들을 만나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분들께 필자는 커피라도 한 잔씩 대접해 드리고 싶어 자판기에 1000원권 지폐를 넣고 한 잔씩 나눠드리고 있다. 5명이면 1000원, 10명이면 2000원이 든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 무다보면 종이컵마다 격려와 건의로 가득 찬다. 주로 하소연이지만 타운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에게는 중요한 민원으로, 대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영장 물이 차요. 감기 걸렸는데 수영하다가 더 심해졌습니다."는 민원에, 필자는 "타운 수영장이 광주 시내 어디보다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 쉬시면 좋을 텐데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저 커피 한 모금을 꿀꿀 삼킨다. 민원의 말씀은 계속된다. "지난해보다 난방을 안 해 더워 죽겠소"라는 말씀에는 "관공서 여름철 실내적정온도 기준

느껴 된다"고 한다. 물론 모든 불만족이 원장과 대화 한번 했다고 사라질 수는 없으나 가벼운 민원은 이 자리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해결되고 있다. 그분들 모두 돈이 없어 원장의 '자판기 커피'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화, 곧 소통의 육구를 필자 커피 한 잔에 담아낸 것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어르신들의 결론이 항상 똑같은데 있다. 어떤 것을 지적하셨든 하소연이든 "건강타운 자체가 우리 노인들 천국이기는 하지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라고 마무리한다.

이렇게 귀하고 내실있는 소통의 시간이 1000원, 2000원의 행사비로 마련되고 있으니 1000원짜리 지폐는 얼마나 소중한가. 타운 안에서는 '하루 행복 교환권'으로서 1000원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듯하다. <빛고음노인복지재단 원장>

부모 자살하면 아이들 자살·정신장애 위험 3배

얼마 전에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연구해서 발표된 내용을 보고 놀라왔다. 부모가 자살을 해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들 역시 자살을 하거나 각종 정신장애가 발병할 위험이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또 유전적 인자뿐 아니라 환경적 인자와 발달적 인자가 다음 세대에 서도 자살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발달적, 환경적, 유전적 인자 모두가 합쳐져 자녀가 자살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이런 연구 결과가 헛되이 나온 게 아니라고 볼 때 우리나라 부모들은 물론, 국가적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당장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자살을 하는 것이 자녀가 어떤 연령에서든 자살을 하거나 정신질환이 발병할 위험을 높인다는 건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김성욱·목포시 대방동

음부즈맨 칼럼

이묘숙



신록의 계절이라기보다 뜨거운 6월이라 불려야 할 만큼 열기를 풀어내는 요즘이다. 지표면의 열기가 무색할 정도로 달아오른 월드컵 열기가 연일 극도의 흥분과 박한 설렘으로 가득하다. 첫 경기 그리스와의 대전을 시작으로 가슴에 지퍼버린 축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불날 새초롬한 꽃샘바람 같은 어심조차도 뒤흔들다 못해 열병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축구경기만큼 흥미로운 지난 지방선거 후, 선거결과에 대한 정치권이 보여 주어야 할 관심 수습의 과정과 행보는 여전히 관심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

의무가 언론 매체에게는 주어져 있다. 외면당하는 민심과 반목하는 사회적 이슈는 다루기 쉬운 기사거리일 것이다. 그러나 미리 앞서 내일을 준비하고 지역민이 한마음으로 단합할 수 있는 희망과 소망 사항은 더욱더 언론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값진 기사일 것이다. 긍정과 행복을 주제로 다루어진 기사들 속에서 독자들도 신문이라는 지면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를 기원한다. 환희의 그 순간이 주는 절정의 포만감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감사 안을 만큼의 긍정

긍정과 행복 가득한 광주일보를 바라며

고, 시작차마자 보여주는 만족스러울 수 없는 양상이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각 지자체가 접근하는 자세나, 세종시 원안에 대한 충청도민의 양분되는 여론들, 그리고 전안할 문제 대한 시민단체의 의문제기 등 여전히 우리 사회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 없이, 양극화 되어가는 극명한 입장차가 반목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비단 정부의 행보만은 아니다. 우리 지방의 경우도 당내의 입지나 시장의 체제 개편과 사업연결이 지역민의 민심과 현황을 고려한 것이 아닌,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으로 보이는 부분 또한 없지 않다. 이런 문제들의 내용을 광주일보의 지역 대표인원으로 나름 노력하면서 진행상황에 대하여 꾸준히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방향이 벗어난 페이스 순간의 탄식이 아니라, 사전에 공격적인 위치와 전술을 짜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앞서 광주일보는 영산강 문제를 기획 기사로 다루어 찬반 의견을 정리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추진될 시정이나 도정에 있어서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과 많은 문제의 시작차를 좁혀가는 제도적인 역할을 우리는 광주일보에게 바란다. 지방 선거를 기점으로 꾸준히 다루고 있는 (민선 5기 이것이 현안이다)의 지역 여러 현안문제에 대한 사전 고지 기사처럼, 잘못된 진행으로 수정과 논쟁을 일으키기보다는 꾸준히 지역민심과 방향성을 알려줄

의 에너지가 넘쳐나게 된다. 외면하고픈 정치적 현안도 분노와 흥분을 삭힐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인 문제도 그 시간만큼은 어느 것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승리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충만케 하고 자신감은 우리가 갖는 능력의 두 배, 세 배의 힘을 증폭시킨다. 긍정의 힘은 우리를 더없이 너그럽고 넓은 이해심까지 안겨 준다.

모든 경기는 황홀한 승리의 시간도, 씁쓸하다 못해 화를 누를 길 없던 패배의 시간도 있을 수 있다. 항상 승리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그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러나 그 반대의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좌절과 패배의식에 빠져 서로에게 질타와 반목을 보내기보다는 새롭게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될 준비와 자세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 그 의지와 힘을 펼쳐낼 때가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던가?

지금은 월드컵만이 아니라 승리를 기원하던 그 마음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들 모두 단결되어야 할 것이다. 날마다 흥흥한 사회의 어두운 뉴스들과 외면하고 싶은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가운데서 작은 희망과 긍정의 불씨를 지피고 불꽃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 지방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방민이 갖게 되는 갈증 수 없는 서운함 속에서 힘이 불끈 솟아날 수 있는 긍정의 에너지들이 날마다 펼쳐보여 광주일보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송은갤러리 관장>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
www.kwangju.co.kr